

# TK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전국 1·2위

## 경북 69.5%·대구 65.3%...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300명 이상 기업' 취업자 34.5% '3년 연속 상승세'

대구와 경북지역의 올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6일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경북이 69.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대구는 65.3%로 두번째로 높았다. 경북과 대구 모두 전국 평균 55.3%보다도 10% 포인트 이상 높

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직업계고 577개교의 2024년 2월 졸업자 6만3천5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여부 등 취업 세부정보를 파악한 것이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55.3%는 전년도보다 0.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다. 진학률은 48.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로 직업계고 중에서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23.5%, 300~1000명 미만 11.0%, 30~300명 미만 34.5%, 5~30명 미만 26.1%, 5명 미만 4.8%로 30~30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중은 34.5%로 3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송태섭 기자 tssong@idaegu.com

## 예담학교, 예술교육 요람 입증 한예중 합격생 2명 배출 눈길

대구예담학교가 예술계열 주요 대학 진학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대구예담학교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1명, 음악원 기악과 트롬본 전공 1명 총 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에 각종학교로 개교한 대구예담학교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고교 위탁형 공립 예술학교이다. 대구지역 2·3학년, 전국 단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연극·뮤지컬, 미술 전공별로 실기 능력 신장을 위해 예술 전문 교사를 편성해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음악과 학생들은 교내·외 다양한 전문가 특강과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합주 실습 및 무대 연주로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또한 연극·뮤지컬 전공 학생들은 연극 제작실습 수업을 통해 배우로서의 기본기를 다지고, 학교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며 실제 무대를 경험한다.

미술 전공 학생들은 스스로 작품을 계획·제작하는 '자기 주도 창작 프로그램', 현역 작가나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미술 전문인 특강', 새로운 매체와 첨단 기법을 배우는 '예술로 탐구생활' 등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통해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고 있다.

최병호 교장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예술 교육과정과 진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학생들의 미래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경북교육청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유치원 10곳과 어린이집 1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바람직한 교육·보육 통합기관 모델 구축 박차

## 경북교육청, 내년 2월까지 유치원·어린이집 20곳 컨설팅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돌봄 격차 감소·전문성 향상 지원

경북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유치원 10곳과 어린이집 1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경북에서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20곳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보통합 이후 바람직한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컨설팅은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컨설팅단을 세 구역

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기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은 교육과정 운영과 정책 추진 중 필요에 따라 컨설팅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장 요구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참여 기관과 컨설팅단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와 피드백

을 통해 사업 성과를 환류할 방침이다.

컨설팅을 신청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렵게 선정된 시범사업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다"며, "특히 개정 누리과정의 수업 설계와 유아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 수능 D-7,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법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3년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한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막상 실전에서 긴장으로 인해 실수를 남발해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는 모두 실전에 대한 부담과 조

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막바지 수능 공부 한창인 지금은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 문제라도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 한 두 문제에 매달리다 시간 배분에 실패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배점이 높은 문제일수록 조금만 더 풀면 정답을 알 것 같아 한 두 문제에 지나치게 장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조절이다. 수험생들은 우선 시간 조절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실전에서는 적절한 시간 안배를 위해 번호 순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되 쉬운 문제부터 풀고, 1분 이상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해 두고 과감히 넘쳐다가 이후에 시간이 남는 경우

다시 풀이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전에서 수험생들이 다급하게 시험지를 뒤적거리다 나중에 풀기 위해 체크해 놓고 넘어간 문제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고 답안을 밀려 적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시간 관례상 지나친 어려운 문제에 하는 별도의 체크 표시는 될 수 있으면 눈에 잘 보이게 하고 난만의 문제 풀이 순서 등이 갖갈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꾸준히 실전에 대비한 연습을 해야 시험 시간 조절에 성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배점이 높은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것도 좋지만 배점이 낮은 쉬운 문제에서 단순 실수를 범할 경우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단순 실수를 줄여야 한다. 실전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쉬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대충 보고 계산을 잘못하거나 문제 및 보기를 잘못 읽어 쉬운 문제를 놓치곤 한다. 이와 같은 단순 실수는 쉬운 문제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익숙한 문제와 쉬운 문제를 풀 때 특히 더욱 주의해 문제와 보기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여야 단순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수능 당일 몸에 익은 자신만의 문제풀이 노하우와 감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꾸준한 실전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그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수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해 수능 당일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자.

##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구한의대 한의학 교육

### 우즈벱 3개 의과대학생 대상 인체 경락·임상 실습 등 진행 양국 전통의학 연관성 강의도

우즈벱스탄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구한의대의 한의학 해외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대구한의대에 따르면 송지정 교수(한의예과)와 송영일 교수(특임교수)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우즈벱스탄 안디잔국립의과대학과,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 부하라국립의과대학 등 3개 의과대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 교육을 시행했다.

안디잔국립의과대학은 이번에 새로 포

함됐으며 내년에는 대구한의대의 한의학 교육이 전공 정규과정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송지정 교수는 한의학에서 인체 경락과 임상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송영일 교수는 이번 시나가 제시한 우즈벱스탄 전통의학과 한국 한의학의 연관성에 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 중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 전통의학과 3,4학년 대상 수업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전공 정규 교육과정 편성 강의이다. 대구한의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모두 수강한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 전통의학과 3,4학년 학생들에게는 1학점의 전공 학점을



안디잔국립의과대학에서 한의학 교육을 마친 후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정할 계획이다.

이번 수업에 참가한 안디잔국립의과대학 3학년 날루파씨는 "내년에는 우리 대학에도 한국의 한의학이 정규교육 과정으로 개설돼 한층 더 깊은 한의학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지정 교수는 "강의를 할 때 마다 우즈벱스탄 학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뜨

거운 관심과 배움의 열정에 매번 놀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즈벱스탄 의과대학 내에 한국 한의학 전공 교육 과정을 더욱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태섭 기자

## 경북대 창업지원단 성과 특특 창업도약패키지 '최우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경북대 창업지원단이 최우수(S등급)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3-7년차 도약기 기업의 혁신성과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대 창업지원단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며,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48개 창업기업을 지원해 협약 기간 동안 매출 2천750억 원, 1천270명의 신규 고용 창출, 292억 원의 투자 유치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송태섭 기자

대구일보 구독신청 053-7575-781